

# 임시정부 '말언니' ...20년만에 애국부인회 재건하다

[3 · 1운동 백년과 여성]

김순애, 재건된 대한애국부인회 주석  
 1919년 4월 상해 부인회 대표도 역임  
 1923년 임정 노선 두고 갈등 후 떠나  
 중경시절 각계 연대에 부인회도 규합  
 재건대회서 '남녀동권향유강령' 발표



1909년의 김순애 모습.

1943년 2월23일 중경 임시정부 집무실은 다소 어수선했다. 조금만 있으면 '대한애국부인회 재건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상해 대한애국부인회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뿔뿔이 흩어진 지 20여년, 이날 여성독립운동가 50여 명이 다시 손을 잡고 부인회 활동을 시작하려 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반반씩 뒤섞여 있었다. 임시정부 여성들의 '말언니'이자 부인회 주석 김순애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쩌면 김순애에게 특히 남다른 날이었다. 1919년, 처음 상해 대한애국부인회가 결성됐을 때 회장을 맡은 게 김순애였다. 그가 이끈 부인회는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을 몰신 양면으로 지원했다. 대한애국부인회 활동에 영향을 받아 중국 곳곳에 있던 여성들도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진 채로 혼전, 간도에 부인회가 발족했다.

4년간 이어온 부인회 활동은 1923년 잠시 접어뒀다.

당시 김순애는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대표로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했다. 독립운동의 방향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각 계파들이 모였다. 내부에서는 임시정부의 진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창조론'을 제안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임시정부를 확대 개편하는 '개조론'을 주장했다.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리자는 목표는 같았으나 방법이 달랐다. 고민 끝에 김순애가 입을 뗐다.

"목적은 같으나 방법은 다르다. 나는 계통을 주장하려다가 창조라도 할까 했다. 개조도 난하고 창조도 난하니 딱 기관을 또 세우면 좋겠다."

그러나 조직의 생각은 달랐다. 대한애국부인회는 임시정부의 '개조론'을 지지했다. 뜻이 달랐으니 누군가는 떠나야 했다. 조직의 결정에 따라 김순애는 부인회 회장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무엇보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투탄 의거'로 일제의 감시가 심해졌다.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중경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세를 모으는 게 절실했다. 각계 각층에서 의견 차이로 흩어졌던 조직들이 모였다. 부인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중경 곳곳에 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다시 뭉치기로 했다. 그게 한 달 전이었다.

20년 만에 다시 모인 '옛동지'들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해방된 조국이 남녀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



1943년 재건대한애국부인회 회원들. 왼쪽부터 차례로 최선화, 김현주, 김순애, 권기옥, 방순희.

에서 평등한 '민주주의 공화국'이길 바랐다. 50여 명이 머리를 맞댔고 강령 하나하나를 만들어갔다.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대회에서 발표될 터였다.

이윽고 대회가 시작됐다. 결연한 표정의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7개 항의 남녀동권향유강령을 발표했다.

1. 국내외의 부녀를 총 단결하여 전 민족해방운동 및 남자와 일률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향유하는 민주주의 신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공동 분투하기로 함.

2. 혁명적 애국 부녀를 조직 동원하여 국내외의 전체 부녀동포의 각성과 단결을 촉진하며, 나아가 전민족의 총단결과 총동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

3. 전민족해방운동을 총영도하는 혁명적 권력구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옹호함.

4. 부녀의 정치·경제·교육·사회상 권리 및 지위 평등을 획득하기에 적극 분투하기로 함.

5. 부인의 정치·경제·지식의 보급 향상과 문맹퇴치 및 문화수준의

제고와 특히 아동 보육사업에 노력함.

6. 직업상 부녀의 권리 및 지위의 남녀평등과 특별 대우 향유의 획득에 노력함.

7. 전세계 반파시스트 부녀의 국제적 단결을 공고히 하여 전세계 부녀의 해방과 전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동 분투하기로 함.

그렇게 중경의 집무실에서 대한애국부인회는 다시 뒀을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순애가 있었다. 뉴스

## 김순애는 누구...임시정부 다방면 지원 '숨은 공신'



김순애의 남편 독립운동가 김규식

김순애는 1889년 5월12일 황해도 장연군 대우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만석꾼으로 지역에서 이름난 대지주였다. 마을에선 '이 집안은 '김참판댁'이라고 불렀다. 김참판댁은 마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근대문물을 수용한 집안이었다. 이 덕에 김순애의 형제지매들은 근대 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다수가 민족운동과 교육운동에 헌신했다.

그의 둘째 오빠 김운오는 1906년 구국계몽운동단체인 서우학회의 발기인이었다. 셋째오빠 김필순은 의학교육을 받고 안창호와 가깝게 지내며 독립운동자금도 지원했다. 여동생 김필례는 기독교성단체인 한국 YWCA를 창설했다. 조카인 김마리아는 여성독립운동가로 상해임시정부에서 활약했다.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김순애의 삶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김순애는 서울 의학교에서 수학하는 셋째오빠의 권유로 상경했다. 정선여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 초령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한국사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던 당시 김순애는 몰래 자신의 하숙집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지리와 역사를 가르

쳤다. 자신의 교육활동이 몇차례 발각되고 105인 사건으로 안창호를 지원하던 셋째오빠가 체포 위기에 처하자 김순애는 1911년 민주 통화현으로 망명했다. 기나긴 망명 생활의 시작이었다.

망명 기간 동안 김순애는 1915년 9월 난징의 중화명탁여자학원에 입학했다. 중국어와 영어는 그곳에서 익혔다. 그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이후 외교활동을 나서는데 큰 무기가 됐다.

김순애의 본격적인 독립운동은 1919년 독립운동가 김규식과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시작한다. 이들 부부는 여운경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조직해 상해로 거처를 옮기고 국내외 민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벌였다.

망명시기 내내 김순애는 임시정부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1919년 상해지역 부녀자들을 모아 상해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선출돼 한국 지도와 태극기를 제작하거나 대내외 임시정부

요한 의사양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1926년에는 안창호 등과 함께 임시정부경제후원회를 발족해 임시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에 힘썼다.

일제 강점기 후반인 1943년 2월에는 중경에 있는 각계 부인 50여명

- 만석꾼 대지주 집안서 근대교육 혜택
- 독립운동가 김규식 혼인해 본격 활동
- 망명 기간 내내 임시정부 다방면 지원
- 1919년 상해 부인회 창설해 회장 맡아
- 외곽단체 의용단과 대학적십자 조직

의 선전 활동을 했다. 1920년 1월에 는 무장투쟁적 성격을 띠는 임시정부 외곽단체 '의용단'을 조직했다. 같은 시기 대한적십자를 조직해 간호원양성소를 열어 독립전쟁에 필

과 함께 대한애국부인회 재건대회를 개최했다. 김순애를 주석으로 추대한 부인회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7개 항의 남녀동권향유강령을 발표했다. 이들은 포로수용소를 통해 남

어오는 동료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계몽 운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김순애는 같은 해 3월 워싱턴회담에서 독립된 한국을 국제 감시 보호 아래 두기로 합의했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는 부인회 대표로 재중국자유인대회에 참가해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순애가 조금 땅을 밟은 것은 1945년 11월23일 임정요원 1차 한국 때였다. 귀국 후에는 교육계에 몸을 담았다. 1946년 모교인 정선여자중고등학교의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해 평의사를 역임하고 1962년 사임했다.

남편 김규식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이승만과 대립하다 한국전쟁 때 납북됐다. 남쪽에 남은 김순애는 남편의 행적을 수소문했다. 끝내 남편의 행적을 알지 못한 채 김순애는 세상을 떠났다. 1976년 5월17일, 향년 87세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짜뉴스